

2023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사업

최종 심의평

- 서류를 검토하며 청년 예술가분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경기도 지역에 예술을 사랑하며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융복합, 리서치, 담론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어 청년예술인들의 다양한 관심도 살필 수 있었습니다.
- 이 사업은 청년 예술인들이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비록 소액의 지원이지만 결과에 대한 부담없이 과정 중심으로 청년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심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취지에 따라 신청자들의 계획을 살피고자 했습니다. 신청인들은 각자 자신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그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청년예술인들의 작업에 대한 열망을 살피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 그러나 제한된 자원에서 소수의 선정자를 선택해야 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 먼저 개인의 역량 개발에 지원 취지가 있다고 하나,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공공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이미 공모과정에서 공개되었듯 심의 기준에서 ‘확장성’ 항목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교육비 등등보다는 동료들과의 워크숍, 네트워크 등을 주목하였습니다.
- 각 신청자들의 진정성과 열망은 인상적이거나 역시 공적 재원을 지원하는만큼 계획의 구체성을 살폈습니다. 세부계획과 예산계획 등에서 프로젝트의 구체적 과정이 합리적으로 제시되었는가를 살폈습니다.
- 많은 신청자들이 대체로 공연제작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사실 이 지원사업은 공연제작 지원이 아니며 창작자로서의 개인 역량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공연을 만들고 무대에 서고 관객을 만나는 것이 공연예술인의 자립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연제작 계획에 대해서도 계획의 적절성, 합리성, 실현가능성을 살폈습니다. 공연제작 계획에서 구체적인 과정을 설계하고 있는지, 자신의 의도가 명료한지 등을 살폈습니다. 또 이전 작업과의 연계성이 보이는 경우 주목하였는데, 구체적이고 적절한 계획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 더 많은 청년예술가들에게 더 다양한 기회가 가 닿지 못한 점은 아쉬웠습니다. 선정여부는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한 부합 여부이지 프로젝트의 우수성 여부가 아닙니다. 선정자들에게 이 지원이 자신의 작업을 확고히 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3. 5. 22.

심의위원 김소연, 윤종연, 이우재, 장지원